

研究論文

『삼국사기』 유리왕 條와 <黃鳥歌>의 의미 고찰

황 병 익\*

I. 들어가기	IV. 마무리
II. 『삼국사기』유리왕 條 ‘大武神王母 松讓女’와 ‘王田於箕山’의 의미	<참고문헌> <국문요약>
III. <黃鳥歌>의 의미 고찰	

I. 들어가기

<黃鳥歌>는 몇 안 되는 古代詩歌의 하나로, 한국문학사에서 매우 소중한 자료이다. 그간의 논의에서 『三國史記』卷13 高句麗 本紀 瑠璃王 3年 條의 기록과 <황조가>를 관련짓고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혹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작가와 창작 시기, 내용적·장르적 성격에 관한 다양한 해석들이 도출되었다.<sup>1)</sup> 『삼국사기』에는 유리왕을 <황조가>의 작가로 명기하고 있지만 유리왕 2년에 혼인한 妃 松讓女가 그 이듬해에 죽었는데도 유리왕 23년에 태어난 3대 大武神王이 송양녀의 아들이라 함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삼국사기』 해당 기록 전체의 신빙성까지 회의하기

\* 경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외래교수, 고전시가 전공(hwangbi@ks.ac.kr).

1) <황조가>에 관한 연구 태도와 관점, 쟁문의 차이는 李庚秀, 「黃鳥歌의 解釋」, 『韓國文學史의 爭點』(集文堂, 1986), 99~106쪽; 田寬秀, 「제의적 측면에서 본 黃鳥歌의 성격」, 『韓國古典詩歌史』(集文堂, 1997), 205~216쪽; 임주탁·주문경, 「黃鳥歌의 새로운 해석: 관련서사의 서술의도와 관련하여」, 『冠嶽語文研究』, 29집(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4), 439~447쪽에 잘 나타나 있다.

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황조가>의 작자와 의미, 장르적 성격까지도 여전히 혼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기존에 다양한 각도에서 주목해 왔던 ‘大武神王母 松讓女’, ‘王田於箕山’의 의미 파악에 주안점을 두고 유리왕대의 정치적 배경을 살피면서 유리왕의 비 송양녀의 존재를 해명하고, 禾姬와 雉姬의 다툼을 고구려 2대 유리왕의 정치적 입장과 연관 지어 이해하고자 한다. 또 유리왕과 그 관련 설화, 그리고 <황조가>의 상관관계를 재점검하고 여러 문헌 속의 용례를 통해 <황조가>의 문면을 역사적·실증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작품의 성격을 밝혀 나가하고자 한다.

## II. 『삼국사기』유리왕 條 ‘大武神王母 松讓女’와 ‘王田於箕山’의 의미

### 1. ‘大武神王母 松讓女’의 의미

『삼국사기』에 “대무신왕의 諱는 無恤이요 유리왕의 셋째 아들이다. 어머니는 松氏이니 多勿國王 松讓의 딸이다. 어렸을 때 총명하였고 자라니 슬기롭고 용맹하며 원대한 지략을 가졌다. 유리왕 33년에 태자가 되니 그때 나이 11세였다”<sup>2)</sup> 하였으니, 유리왕 3년 겨울에 죽은 유리왕비와 대무신왕의 관계가 모호하다. 이에 “유리왕 3년에 왕비 송양녀(松氏)가 죽었음에도 『삼국사기』에는 제3대 대무신왕이 왕비 송씨의 소생이라고 했다. 대무신왕은 유리왕 33년에 11살의 나이로 태자에 봉해졌으니 그는 유리왕 23년에 태어난 셈인데, 왕비 송씨 소생이라 했으니 사실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주몽에 이어 왕위에 등극한 유리왕에 대한 기록은 역사적 문맥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신화적 문맥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sup>3)</sup> 식으로 『삼국사기』 해당 조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주장이 역사·문학 연구에서 여럿 제기되었다.<sup>4)</sup> 유

2) “大武神王 諱無恤 琉璃王 第三子 母松氏 多勿國王松讓女也 生而聰慧 壯而雄傑 有大略 琉璃王在位三十三年 甲戌立爲太子 時年十一歲 至是卽位.” 『三國史記』 권13, 高句麗本紀 第2, 大武神王.

3) 허남춘, 「고대사가의 주술성과 제의성」, 『新編 古典詩歌論』(새문사, 2002), 62쪽.

4) “이 기록에 의하면 大武神王은 松氏의 子가 될 수 없다. 대무신왕은 禾姬와 雉姬 가운데 鶻川人 화희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李道學, 「高句麗 初期王系의 再檢討」, 『伽倻通信』, 18(伽倻通信 編

리왕 조 기사의 모순점을 들어, 禾姬는 농경 경제, 雉姬는 수렵 경제를 대표하고, 그들의 쟁투는 고구려의 사회역사적 전환을 신화적·설화적으로 투영한 것이라 추정하기도 하고,<sup>5)</sup> 나아가 왕비 송씨의 죽음은 모의적·상징적인 것이고 『삼국사기』 유리왕 條는 송씨가 離宮에 유폐되고 상징적인 죽음을 거쳐 풍요의 생산 능력으로 신성성을 확보하는 再生祭儀 과정을 담은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sup>6)</sup> 한편 “왕비 송씨가 죽고 난 후 媵妾制度에 의해 송씨의 자매나 조카딸에 의해 송씨의 혈통이 이어졌다”는 견해가 제시<sup>7)</sup>되면서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 (1) 姉亡妹續은 한 남자가 어떤 집의 큰딸과 결혼하면 적령기에 있는 처제와 결혼할 수 있는 권리로, 원시 사회 群婚의 한 형식이다. 이 결혼 풍속은 널리 유행하다가 遼 太宗의 명령으로 없어졌다. 거란은 또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이 아버지의 첩을 승계하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이어받는 풍속이 있었으니 이 또한 원시 사회 群婚의 잔여 형식이다.<sup>8)</sup>

위의 글은 契丹의 繼承婚, 즉 ‘姉亡妹續’에 관한 설명으로, 이는 언니가 죽으면 여동생이 그 자리를 잇는 제도이다. 이는 伙婚制·接續婚·隸役婚·妻姊妹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舜임금은 堯임금의 두 딸 娥皇과 女英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前漢 景帝(기원전 157~141)가 왕후·여동생과 연이어 혼인했으며, 東漢 때에 馬嚴이 明帝(A.D. 57~75)에게 상소를 올려 馬援의 세 딸을 들일 것을 청하였고 일찍이 명제는 閻章의 두 여동생을 귀인으로 삼은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혼인풍속은 女眞族에도 나타나고, 遼나라 太宗이 “백성들에게 播種과 紡績을 가르칠 것을 명하면서 언니가 죽으면 그 여동생이 아내 자리를 잇는 법을 없애게 했다”<sup>9)</sup>하

輯部, 1988), 32쪽.

- 5) 金承燦, 『韓國上古文學研究』(第一文化社, 1978), 13쪽.  
 6) 許南春, 「黃鳥歌의 祭儀의 性格(1)」, 『成大文學』, 24(成均館大 國語國文學科, 1985), 155~162쪽.  
 7) 김영수, 「黃鳥歌 新解釋」, 『古代歌謠研究』(단국대학교출판부, 2007), 436~438쪽; 조용호, 「황조가의 求愛民謠의 성격」, 『古典文學研究』, 32(한국고전문학회, 2007), 18쪽.  
 8) “姉亡妹續是一種媵制習俗 卽一個男子在與某家長女結婚后 有續娶達到婚齡的妻妹們的權利 這也是一種原始社會群婚殘余形式 這一婚俗廣汎流行于阿保机 建國前的契丹族中 建國后仍然存在一個時期 會同三年十一月 遼太宗詔 ‘除姉亡妹續之法…’ 契丹族也具有父死子繼庶母 兄亡弟承媵嫂的習俗 這種習俗也是原始社會群婚殘余形式” 张碧波·董国尧, 『中国古代北方民族文化史』(民族文化卷, 黑龙江人民出版社, 1993), 257쪽.

였으니 姉亡妹續은 兄死娶嫂와 함께 매우 보편적인 혼속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伙婚制는 원시공동체 사회에서 여러 명의 남녀가 서로 공동으로 배우자가 되는 群婚制가 일부다처제로 바뀌는 중간 단계였던 것이므로 이를 일부다처제의 변종인 媵妾制로 보기도 한다.<sup>11)</sup> 兄死娶嫂가 匈奴·扶餘 등에 공통으로 나타나고<sup>12)</sup> 부여와 고구려의 풍속이 흡사했던 점을 감안하면, 『삼국사기』에서 大武神王의 어머니가 松讓女라 한 것은 유리왕 3년에 松讓妃가 죽자 姉亡妹續의 혼속에 따라 松讓의 다른 딸을 다시 왕비로 맞이하고, 유리왕 23년 그녀와의 사이에서 대무신왕(무휼)이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姉亡妹續은 왕실과의 인연을 지속시키고 서둘러 대통을 이어 정국을 주도하려는 外戚 松讓의 자연스런 욕망을 반영한 것이니 대무신왕이 松讓妃의 아들이라는 『삼국사기』 유리왕 조의 기록을 불신하고, 이를 확대하여 유리왕과 <황조가>의 관계를 회의하거나 유리왕비의 죽음을 모의적·상징적인 죽음으로 단정하면서 <황조가>의 성격을 재단하려는 관점은 온당치 않다.

## 2. ‘王田於箕山’의 의미와 유리왕대의 정치 상황

### 1) ‘王田於箕山’의 의미

『삼국사기』 유리왕 조 “뒤에 왕이 箕山에 사냥(田) 하러 가서 칠일동안 돌아오지 않으니 두 여인이 싸웠다(後王田於箕山 七日不返 二女爭鬪)”에서 田의 성격을 파악하는 일은 유리왕 당시의 정국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禮記注疏』와 『春秋左傳注疏』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 9) “女眞族의 接續婚與隸役婚 女眞族社會流行接續婚 卽所謂 妻后母報寡嫂 父死兒繼娶后母 兄死弟納嫂 弟死兄收繼弟婦 叔伯死姪繼娶孀娘 因此人無論貴賤都有數妻”[汪玢玲·張志立(主編), 『中國民俗文化大觀』(吉林人民出版社, 1999), 130~131쪽], “丁丑 詔有司教民播種紡績 除姉亡妹續之法.” 『遼史』卷4, 本紀, 太宗 下, 會同3년.
- 10) “妻姊妹, 夫兄弟. 漢代皇宮中 ‘妻姊妹’的 現象頗多 漢景帝的王皇后與妹兒姁先后入宮 嫁給景帝. 東漢時 馬嚴曾上書明帝 請納馬援三女 明帝曾納閭章二妹爲貴人 此類例子較多” 韓養民, 『秦漢文化史』(陝西人民教育, 1986), 135쪽.
- 11) 김원중, 『혼인의 문화사』(휴머니스트, 2007), 166~169쪽.
- 12) “兄死妻嫂 死則有棹無棺”;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30, 夫餘傳. “兄死妻嫂 與匈奴同俗.” 『後漢書』卷85, 東夷列傳 제75, 夫餘國.

- (1) 天子 諸侯는 탈 없이 편하게 지낼 적이면 해마다 세 가지를 위한 狩獵을 행하는데, 첫째는 乾豆를 위한 것이요, 둘째는 賓客을 위한 것이요, 셋째는 왕의 庖廚를 채우기 위함이다. 여름을 숭상하는 까닭에 여름에는 수렵하지 않는다. 『周禮』엔 봄의 수렵을 ‘蒐’(蒐田, 蒐畋, 蒐獵), 여름의 수렵을 ‘苗’, 가을의 수렵을 ‘獮’(獮田, 獮畋), 겨울의 수렵을 ‘狩’(狩田, 狩畋)라 한다. 여기서 乾豆는 제사지낼 때 쓰기 위한 마른 고기이고, 庖는 부엌이다. …탈 없이 편안한 때에도 수렵하지 않는 것을 不敬이라 하고, 수렵을 예로써 하지 않으면 하늘이 내린 생명에 모질게 군다 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도 빈객을 맞이하는 일에도 제한이 많다. 천자는 동물들을 에워싸지 않고 제후들은 그 무리를 덮치지 않는다.<sup>13)</sup>
- (2) “예전에 宣子가 首山에서 사냥할 때 무성한 뽕나무 밑에서 머물렀는데, 靈輶이 굽주려 수척한 모습을 보고서 ‘무슨 병이 있느냐?’고 묻자 영첩이 ‘먹지 못한 지 사흘이다’고 대답하였다.” — ‘田’은 사냥하는 것이다. ‘翳桑’은 뽕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진 곳이고, ‘首山’은 河東 蒲坂縣 동남쪽에 있다.<sup>14)</sup>

(1), (2)에서 ‘田’은 말 그대로 사냥(수렵, 전렵)을 뜻하는데, 문제는 수렵의 목적과 의미이다. 왕은 동물들을 에워싸지 않고 제후들은 동물의 무리를 덮치지 않아야 했으며 왕의 반드시 예로써 수렵해야 했다. 왕의 수렵은 제사에 쓸 고기를 마련하거나 손님맛이를 위해 혹은 부엌을 풍성하기 위해 행해졌다 하고, 왕의 수렵은 각처를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위로하는 巡撫의 성격을 가진다. 한편 “哀公이 사냥을 너무 좋아해서 짐승 쫓아다니는 일이라면 싫어하지 않았다(哀公好田獵 從禽獸而無厭)”(『詩經』 還序) 하였으니 수렵은 때로 왕의 기호와 취미에 따라 행해지기도 했다. “晉에는 公族이란 벼슬이 없었는데 成公이 즉위하자 경의 큰아들에게 벼슬과 토지를 주어 公族大夫로 삼았다”<sup>15)</sup> “유리왕 24년 9월 왕이 箕山의 들녘에

13) “天子諸侯無事 則歲三田 一爲乾豆 二爲賓客 三爲充君之庖 注三田者夏不田 蓋夏時也 周禮 春曰蒐 夏曰苗 秋曰獮 冬曰狩 乾豆謂腊之 以爲祭祀豆實也 庖今之廚也…無事而不田 曰不敬 田不以禮曰暴天物 不敬者簡祭祀略賓客 天子不合圍 諸侯不掩羣.” 『禮記注疏』 王制, 권12.

14) “初 宣子田於首山 舍于翳桑 -注 田獵也 翳桑 桑之多蔭翳者 首山在河東蒲坂縣東南- 見靈輶 問其病曰 不食三日矣.” 『春秋左傳注疏』卷21, 魯宣公.

15) “晉無公族 及成公即位 乃宦卿之適子而爲之田 以爲公族 -田 宦仕也 爲置田邑以爲公族大夫.” 『春秋

전립을 나가 양쪽 겨드랑이에 깃이 난 이상한 사람을 만나자 그에게 羽씨를 賜姓하고 왕녀와 혼인시킨<sup>16)</sup> 기록은 통치자가 親屬이나 臣僚들에게 영토를 나눠주거나 사성하는 정치 행위로서의 巡狩이다.

초기의 고구려는 비류국(비류나)·행인국·주나·조나 등 國과 郡로 기록된 소국들을 병합하여 지방행정 구역으로 편제하면서<sup>17)</sup> 세력을 넓혀나갔다. 1~3세기 고구려의 빈번한 순행은 국가 형성기의 정치적 시련을 반영한 것으로, 정치적 성숙과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sup>18)</sup> 고구려왕의 수렵은 오락, 祭儀의 희생물 마련, 군사 훈련, 전쟁 등 여러 가지 의미일 수 있지만,<sup>19)</sup> 초기 3왕대에 臣屬을 통해 賜姓者를 포섭하는 賜姓이 집중되는 것을 보면,<sup>20)</sup> 유리왕의 田獵(蒐田)도 민정시찰·領土認識·주변국 복속 등을 통해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국가적 결속을 다져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sup>21)</sup>

## 2) 유리왕대의 정치 상황

고구려는 기원전 75년에 漢四郡의 하나인 현도군을 서쪽(興京·老城 방면, 新賓縣)으로 밀어내는 데 성공하지만,<sup>22)</sup> 이후에도 漢은 여전히 침투를 기도했다. 여기에 부여의 외압, 靺鞨의 발호와 鮮卑의 공세로 相爭과 위기의식이 더해졌다. 즉, 漢은 고구려가 물적·인적 자원이 풍부한 서부·북부·서남부로 접근하는 출로를 봉쇄하였고, 부여왕 帶素는 以小事大를 강요했으며, 鮮卑는 고구려와 화친하지 않

左傳』卷10, 魯宣公 2年.

- 16) “二十四年 秋九月 王田于箕山之野 得異人 兩腋有羽 登之朝 賜姓羽氏 俾尙王女.”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琉璃王 24年.
- 17) 이종욱, 『고구려의 역사』(김영사, 2005), 83~84쪽.
- 18) 申滢植, 『韓國古代史의 新研究』(一潮閣, 1984), 100쪽.
- 19) 김영하, 「고구려의 巡狩制」, 『역사학보』, 106(역사학회, 1985), 26쪽; 金瑛河, 「新羅時代 巡狩의 性格」, 『民族文化研究』, 14(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79), 212~236쪽 참조.
- 20) 金光洙, 「高句麗 建國期の 姓氏賜與」, 『史學論叢』(金哲堉博士華甲紀念論叢 刊行委員會, 1983), 962~963쪽; 김미경, 「高句麗 琉璃王代 政治勢力의 再編과 對外政策」, 『北方史論叢』, 4(고구려연구재단, 2005), 221, 233쪽. “소국 병합은 주몽 대에 시작하여 琉璃王·大武神王에 이르는 기간 동안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그 결과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종욱, 『한국의 초기국가』(아르케, 1999), 313쪽.
- 21) 琴京淑, 「高句麗 國內城 遷都의 歷史的 意味」, 『高句麗研究』, 15(高句麗研究會, 2003), 20쪽 참조.
- 22) 『후한서』 권85, 동이열전75, 동옥저.

고 힘준한 지세를 믿고서 이익이 되면 나와 노략질하고 불리하면 들어가 지키는 걱정거리<sup>23)</sup>로 자리했다. 반면 국내 토착세력들은 독자적 積石塚를 축조한<sup>24)</sup> 那 혹은 國으로 자체 결집하여 점점 강성해지면서 한사군의 지배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시작했다.<sup>25)</sup>

국가초기 고구려 주민들은 보다 고양된 수준의 정치적 존재 양식의 창출, 곧 국가 형성을 소망했지만<sup>26)</sup> 유리왕은 부여에 대해 ‘나라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 백성과 군사들이 잔약하니 아직은 치욕스러움을 참고 후일을 도모해야겠다’고 판단할 만큼<sup>27)</sup> 대외 응전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주몽은 召西奴로 대표되는 지지 세력의 도움으로 松讓과 같은 토착세력을 제압해 나갔으나 유리왕 자신의 闖入으로 왕실이 분열되어 소서노의 아들인 비류와 온조가 남하했으니, 유리왕은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내부를 수습하고<sup>28)</sup> 새로운 편제와 영역 확대를 꾀해야 했다. 유리왕이 누대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던 토착집단 松讓의 딸을 妃로 맞이한 것은 토착세력들의 지원으로 통치의 정통성을 부여받아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세력기반을 넓히려는 의도에서 비롯했을 것이다.<sup>29)</sup>

23) “王謂羣臣曰 鮮卑恃險 不我和親 利則出抄 不利則入守 爲國之患 若有人能折此者 我將重賞之.”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琉璃王 11年 4月.

24) “압록강 중류일대에 대한 漢 군현의 지배 양상은 漢代의 土城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최근 集安 國內城址 아래층의 토성을 비롯하여 桓仁 下古城, 通化 赤柏松古城 등 한대 토성지가 압록강 중류 일대에서 발견되었는데, 현도군이나 屬縣의 治所로 추정된다. 이들은 대체로 교통로상의 요지에 위치하였고, 주변에는 넓은 충적대지가 펼쳐져 있으며, 환인 하고성과 집안 국내성 부근에는 고구려 초기의 적석묘가 널리 분포하고 있다.” 余昊奎, 『高句麗의 國家形成과 漢의 對外政策』, 『軍史』, 54(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6쪽.

25) 강선, 「고구려 건국시기 대외관계」, 『고구려의 국가 형성』(고구려연구재단, 2005), 257쪽.

26) 박경철, 「고구려의 국가형성」, 『고구려의 정치와 사회』(동북아역사재단, 2007), 73쪽 참조.

27) “秋八月 扶餘王帶素使來讓王曰 我先王與先君東明王相好 而幼我臣逃去 欲完聚以成國家 夫國有大小 人有長幼 以小事大者禮也 以幼事長者順也 今王若能以禮順事我 則天必佑之 國祚永終 不然則欲保其社稷難矣 於是王自謂 立國日淺 民孱兵弱 勢合忍耻屈服 以圖後効 乃與羣臣謀報曰 寡人僻在海隅 未聞禮義 今承大王之教 敢不唯命之從.”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琉璃王 28年 8月.

28) 김미경, 앞의 논문(2005), 220쪽, 244쪽 참조.

29) 琴京淑, 앞의 논문(2003), 10쪽 참조.

### III. <黃鳥歌>의 의미 고찰

#### 1. <황조가>의 어휘 풀이

##### 1) 翩翩黃鳥

##### (1) ‘黃鳥’

그간 ‘黃鳥=피꼬리’의 등식이 성립해 왔으나 이를 ‘참새’로 번역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면서<sup>30)</sup>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 (1) ① 『毛傳』에 따르면 黃鳥는 搏黍이고, 蘇傳呂記에는 피꼬리(鸚)로 되어 있는데 이름은 달라도 실은 같은 것이다.<sup>31)</sup>
- ② 『爾雅』郭注義疏 下5 ‘釋鳥’에는 황조를 ‘皇(凰)黃鳥’라 칭하면서 ‘黃離留’, ‘搏黍’와 같다 하였다. 한편 『詩經』葛覃의 郝懿行 義疏를 소개하면서 이는 지금의 ‘黃雀’이라 하였는데, 그 모양이 참새와 같으나 색깔이 노란색이라서 ‘황조’라 불린다 하였다.<sup>32)</sup>

위 (1)·②에 따르면 황조는 피꼬리, 혹은 黃雀을 칭한다.<sup>33)</sup> ①에는 “黃鳥는 계절을 따르는 새로 ‘黃裳’ 혹은 ‘鶯’이라 한다. 꼬리는 검고 부리는 뾰족하고 붉은 색이며 다리는 푸른빛을 띠고 온몸이 감초색이고 노란 깃과 검은 꼬리털을 가졌다. 3, 4월에 매끄럽고 고운 소리를 내는데, 羅에는 이 새가 짝지어 날아다니기를 좋아해 ‘鸚’를 ‘從麗’라 했고, 실제 이 새는 반드시 짝을 지어 다닌다”<sup>34)</sup>는 설명을 덧붙였으니 ①의 황조는 분명 黃鶯 黃鸚留 黃栗留, 즉 피꼬리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②에서의 황조는 피꼬리가 아닌(非黃離留也) 黃雀이다. 黃雀은 생김이

30) 임주탁·주문경, 앞의 논문(2004), 459쪽에 ‘黃鳥’를 참새로 번역해야 한다는 정종진 교수 등의 문제 제기를 제시하였다.

31) “毛傳曰 黃鳥 搏黍也 蘇傳呂記 黃鳥 鸚也 名異而實同耳 爾雅 釋鳥曰 皇黃鳥 郭註云 俗名 黃離留 亦名搏黍 爾雅 又有倉庚 商庚 鶯黃 楚雀 倉庚.” 黃中松 撰, 黃鳥, 『詩疑辨證』卷1, 詩序.

32) “皇 黃鳥 郭璞注 俗呼黃離留 亦名搏黍 黃離留 卽黃鶯 郝懿行 義疏 按此卽今之黃雀 其形如雀而黃 故名黃鳥 又名 搏黍 非黃離留也.” 『爾雅』郭注義疏 下5 釋鳥.

33) 최두식·하상규, 『詩經과 韓國古詩歌』, 『古詩歌研究』(동아대학교 출판부, 2002), 44~67쪽에도 역사적 흐름 속에서 구구하게 해석되며 혼선을 빚은 黃鳥의 여러 용례를 잘 제시하고 있다.

34) “應節趨時之鳥也 或謂之黃裳 楊云鶯 黑尾 嘴尖紅 腳青 遍身甘草 黃色羽及尾有黑毛 三四月鳴聲音圓滑 羅云 此鳥之性 好雙飛 故鸚字 從麗 又云 鸚必匹飛.” 黃中松 撰, 黃鳥, 『詩疑辨證』卷1, 詩序.



참새와 흡사하나 노란빛을 띠어서 황조라 했는데, “몸집이 작은 春鳥로서, 숨어 지내다 봄에 나타난다(『周禮』春官)”하고, “몸의 윗부분이 황록색이고, 배 부분은 흰색이며, 허리 부분이 조금 누른빛을 띠는 새(♂)/몸 윗부분이 약간 누르고 암갈색이 섞여 있다(♀)”하며,<sup>35)</sup> “黃雀은 金雀 혹은 蘆花黃雀이라고도 하는데, 다 큰 새는 110~120毫米, 체중은 12~14克이다. 수컷의 대가리 꼭대기와 목의 중앙은 검고 배 부분은 暗綠色이며 허리 부분이 금빛이다. 날개깃에도 검은색과 금색이 섞여 있고 하체 앞부분은 금빛, 뒷부분은 흰색이 검은 털과 섞여 있다” 했으니, 보통의 참새와 달리 “허리와 날개깃에 황금빛을 가진 참새”임에 분명하다. “웬 黃雀이 왔다 갔다 하는가. 일 년 농사 아랑곳 않고, 늙은 할아버지 혼자 지은 곡식, 밭에 있는 벼와 기장을 다 쪼아 먹느냐!”와 “그물에 걸린 참새(雀)야 너는 어이해, 그물에 걸리는 한심한 신세 되었느냐?”<sup>36)</sup> “자릿 7셋 밋했 새(野雀)는 모다 저비를 期弄하고 곳미뵈 뵈했 버른 머리 사르들 조차 오느다”와 “블근 鸞鳥는 遠近 업시 늘어늘 누른 새(黃雀)는 저기 노로물 任意로 호노라”를<sup>37)</sup> 보면 갈색 톤의 ‘참새(雀, 家雀, 小鳥)’와 셋 노란 빛이 섞인 ‘黃雀’을 구분했음을 볼 수 있다. 『시경』에서는 “황조야, 황조야, 닥 나무(뿡나무, 참나무)에 떼 지어 앉았다가 우리 조를 쪼지 마라”<sup>38)</sup>라 해서 떼를 지어 모여앉아 수수나 기장을 쪼다 했으니 여기서의 황조는 황작인 듯하다.

그러나 “포르르 나는 피꼬리, 그 깃털도 곱구나. 곱고 고운 저 나그네, 노래하며 춤을 추네(翩翩黃鳥 載好其羽 鮮鮮遊子 式歌且舞)”<sup>39)</sup>에서 춤추며 노래하는 황조는 영락없는 피꼬리이다. <黃鳥歌>의 黃鳥는 “버들 숲엔 피꼬리 한 쌍 지저귀고, 해 오라기 때 지어 창공으로 오르네. 창문엔 西嶺의 천년설 비추이고, 문밖엔 東吳의 萬里船이 매여 있네”<sup>40)</sup> “농가에 3월 되니 보리이삭 한창인데, 푸릇푸릇 나무 위에

35) “黃雀雄鳥 上體淺黃綠色 腹部白色而腰部稍黃 雌鳥 上體微黃 有暗褐條紋 鳴聲清脆” 羅竹風, 『漢語大詞典』12下.

36) “黃雀何方來去飛 一年農事不曾知 鰥翁獨自耕耘了 耘盡田中禾黍爲”; “狗狗有雀爾奚爲 觸着網羅黃口兒.” 李齊賢, 小樂府, 『益齋亂藁』卷4.

37) “巢邊野雀群欺燕 花底山蜂遠越人”(杜初 14:37a); “紫鸞無遠近 黃雀任翩翩”(杜初 20:10b).

38) “黃鳥黃鳥 無集于穀 無啄我粟 此邦之人 不我肯穀 言旋言歸 復我邦族…黃鳥黃鳥 無集于桑 無啄我梁…黃鳥黃鳥 無集于栩 無啄我黍.” 『詩經』小雅, 鴻鴈之什, 黃鳥.

39) 陳杰, 四言詩 春日念本也民爲邦本有土此有民, 『自堂存藁』卷1.

40) “兩個黃鸝鳴翠柳 一行白鷺上青天 窓含西嶺千秋雪 門泊東吳萬里船.” 杜甫, 絕句 4首 中 第3首, 『全唐詩』卷228, 4函 第4冊 13卷.

피꼬리 소리 새로워라. 牧丹 아래 나그네 알아보듯, 다정스런 재잘거림 멈추지 않네.”<sup>41)</sup>에서와 같이 황작보다 몸집이 크고 변화무쌍한 소리와 셋노란 몸빛을 가져서 쉽게 눈에 띄어서 자주 문학적 소재가 된 피꼬리일 가능성이 높다. 『詩疑辨證』에서 “피꼬리는 짝을 지어 날아다니기를 좋아한다(此鳥之性 好雙飛)”한 것도 그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2) ‘翩翩’

‘翩翩’은 “외로운 기러기 훨훨(翩翩) 날며, 가우가우 슬피 우는구나. 처량히 옛 짝을 찾아서, 아득히 날아가니 내 맘 더욱 슬프네!”<sup>42)</sup>에서처럼 기러기의 큰 날갯짓을 묘사할 때도, “포르르(翩翩) 나는 파랑새 세 마리, 털빛도 예쁘구나. 아침엔 西王母 심부름 하다, 저물어 三危山으로 돌아가네,” “黃雀은 포르르(翩翩) 날아 마른 갈대에 등지 틀었는데, 강바람 매섭게 불어 갈대 꺾여 등지가 기울었네. 등지야 부서져도 아까울 것 없지만 알이 깨지니 진실로 애달프구나”<sup>43)</sup>처럼 몸집이 작은 파랑새의 날갯짓을 묘사할 때도 쓰인다.

선결 과제는 <황조가>의 ‘翩翩’은 피꼬리의 어떠한 모습을 묘사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피꼬리의 생태와 몸집의 크기 등을 살펴야 할 것이다.

- (1) 피꼬리는 겁이 많아서 언제나 나무 위의 높은 곳에서 나뭇잎 사이에 숨어 있는 새로 알려져 있다. 비상할 때는 날개를 다소 무겁게 펴리고, 과도처럼 긴 활모양을 그리면서 신속하게 날아가지만 짝짓기를 위한 움직임은 **이 나무 저 나무를 분주하게 옮겨 다니며 푸드덕 거리게** 마련이다. “우가야, 우가야” 하고 고양이 울음과 흡사한 소리를 내는데, 번식기 무렵에는 나뭇잎 사이에서 “뻗, 뻗요코, 뻗요, 뻗, 뻗요코, 뻗요”하고 되풀이해서 그 **소리가 변화무쌍하다**. 번식기에는 공격성이 강하여 등지 가까이에 까마귀, 까치 심지어 매 종류나 사람이 접근해도 심하게 공격한다.<sup>44)</sup> / 피꼬리는 번

41) “田家三月麥初稠 綠樹初聞黃栗留 似識洛陽花下客 殷勤百轉未能休。” 林椿, 暮春聞鶯, 『西河集』; 『文叢』1, 234쪽.

42) “翩翩孤飛鴻 嗷嗷苦悲鳴 淒淒覓故侶 悠悠傷我情。” 劉溥, 寄吳思菴敏德, 『吳都文粹續集』卷50.

43) “翩翩三青鳥 毛色奇可憐 朝爲王母使 暮歸三危山。” 陶淵明, 讀山海經, 『陶淵明集』卷4; “黃雀何翩翩 寄巢枯葦枝 江天鳴然風 葦折巢仍欹 巢破不足惜 卵破良可悲。” 權輿, 感懷 3首 中 第2首, 『石洲集』卷1; 『文叢』75, 8쪽.

식기가 되면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거나 다른 수컷에게 자신의 영역을 알리기 위해 아름다운 노래로 지저귐다. 새의 노래인 song은 번식기의 수컷에게서만 들을 수 있다.<sup>45)</sup> / 피꼬리는 공원, 정원, 사찰, 농경지의 소림, 침엽수림, 낙엽 활엽수림, 혼효림 등 여러 지역에서 번식한다. 이러한 綠陰에서 노란 피꼬리가 날아가거나 가지에 앉아 울고 있으면 나뭇잎의 녹색과 대비되어 매우 깊은 인상을 준다. 피꼬리는 겁이 많아서 암수 함께 또는 혼자 나뭇잎 뒤에 숨어 지내고, 나무 위에서 물속으로 날아들었다 돌아와 날개를 가다듬는 水浴을 즐긴다.<sup>46)</sup>

- (2) 혼자서 봄바람에 금실 옷을 짜나니, 붉은 꽃 푸른 잎을 오락가락 나는구나. 버들방죽 긴 실이 어스름 감겨있고, 꽃 두둑 넓은 비단 가로로 걸려 있다.<sup>47)</sup>
- (3) 대들보 위 제비 한 쌍, 암수 포르르(翩翩) 날며, 기둥 새에 진흙 모으네, / 한 등지에 새끼 네 마리, 밤낮 쉬지 않고 자라나는데, / 지지배배 먹이 찾아다녀도, / 벌레 찾기가 쉽지 않다네.<sup>48)</sup>

위의 (1), (2)는 피꼬리의 생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피꼬리는 겁이 많아 숨어 지내지만 셋노란 색깔이 눈에 띈다는 것, 짹짹기를 위해 변화무쌍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이 나무 저 나무 매우 분주하게 움직여 다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2)에서 피꼬리는 (3)의 제비처럼 나는 속도가 매우 빨라서 꽃과 버들 사이를 설새 없이 들락거리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묘사했다. 나는 모습이 황금빛 복이 베를 위를 오가며 옷감 짜는 것과 비슷해 피꼬리를 ‘金梭’, 즉 금빛 나는 복이라 부르기도 했다.<sup>49)</sup> 사전적으로도 ‘翩’은 “翩 鳥飛疾, 빨니 날 편”(釋下 36b), “가인이 스스로 옥화총 돌을 혁 메오니 놀기 놀란 저비 꺾고 느는 놓이 붉는쪼다(古文 5:87)”처럼 빨리 나는 모습, 혹은 “聯翩 往來貌, 오락가락할”(新三 39b), “어물거

44) 원병오, 『한국동식물도감(25권): 동물편(조류 생태)』(문교부, 1981), 1035쪽, 우용태, 『釜山の 새』(경성대학교 조류관, 2002), 313쪽.

45) 정민, 『한시 속의 새, 그림 속의 새(2)』(효형출판, 2003), 208쪽.

46) 이우신(글)/김수만(사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새 백 가지』(현암사, 1994), 307쪽.

47) “自織春風金縷衣 穿紅度翠往來飛 柳堤暗卷絲千尺 花塢橫拋錦萬機” 謝宗可, 鶯梭, 『御定佩文齋詠物詩選』 권437.

48) “梁上有雙燕 翩翩雄與雌 銜泥兩椽間 一巢生四兒 四兒日夜長 索食聲孜孜 青蟲不易捕” 白居易, 燕詩示劉叟, 『全唐詩』卷424, 7函 1冊.

49) 정민, 앞의 책, 194쪽.

릴 편”(古圖, 音韻 45a), “통스들은 셋거 일히와 사슴을 공하고 방숙과 쇼호는 니  
어 늘매 홀과 술병을 주도다(象胥雜選貢狼鹿 方召聯編獬豸)(古文 5-1:156)처럼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묘사한다.

피꼬리가 허공으로 태연히 날갯짓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면 <황조가>의 ‘편편’  
을 “너운너운히 새 든니는 길혀로 드러나 업드롤 厄을 거의 免 호리라(翩翩入鳥道  
庶脫蹉跌厄)”에서처럼 ‘너운너운’이나 ‘더플더플’로 풀이해야 옳겠지만, 피꼬리는  
몸집이 그리 크지 않으니(체비 12~22g<피꼬리 72~100g<멧비둘기 175~323g)  
이 의태어는 적절치 못하다. 오히려 피꼬리 한 쌍이 갑작스런 인기척에 놀라 변화  
무쌍한 소리를 내면서 이 나무 저 나무를 빠른 날갯짓으로 옮겨 다니는 모습을 묘  
사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에 <황조가>의 ‘翩翩’을 메추라기의 奔奔, 까치의  
疆疆, 기러기의 雝雝, 갈매기의 關關 등과 같이 새들의 울음소리와 나는 모습을 포  
괄하여 감각적으로 그려낸 疊字 표현으로 읽어<sup>50)</sup> ‘포롱포롱’ 혹은 ‘포르르 포르르’  
로 풀이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 2) 雌雄相依

지금까지 ‘雌雄相依’는 “암수 서로 노닐다(어울리다)/쌍쌍이 즐기다(즐겁다)/암수  
서로 정답대/암수 서로 의지하다/암수 서로 좇다”로 풀이하여 비교적 이견이 적은  
대목이다. ‘자웅상의’의 관련 용례를 찾으면 다음과 같다.

- (1) “속담에 이르기를, 광대뼈와 잇몸이 서로 의지하므로 입술이 없어도 이  
가 시린 법이다. 虞나라와 虢나라가 바로 그러한 관계이다”<sup>51)</sup>“부모와 자  
식이 서로 의지하며 어렵게 살아간다(猶父母與子 相依爲命也, 『詩傳大全』  
卷12)“臣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오직 형 蘇軾 한 사람을 믿고 따르며  
살았다.”<sup>52)</sup>
- (2) 건장한 일꾼들 맛있게 들밥 먹을 때 애교스런 아내들이 그들을 위로해주  
니(사랑해주니, 有依其土), (일꾼들) 마침내 날카로운 쟁기 잡고 양지 쪽  
밭을 갈기 시작하네.<sup>53)</sup>

50) 마르셀 그라네(저)/신하령·김태완(역), 『중국의 고대 축제와 가요』(살림, 2005), 117쪽.

51) “諺所謂 輔車相依 唇亡齒寒者 其虞虢之謂也.” 『春秋左傳』卷11, 魯僖公 5年.

52) “臣早失怙恃 惟兄軾一人 相須爲命 亦省作 相依爲命.” 蘇軾, 爲兄軾下獄上書, 『樂城集』卷35.

53) “侯疆侯以 有喰其饁 思媚其婦 有依其土 有略其耜 倣載南畝.” 『詩經』頌, 周頌, 閔予小子之什, 載芟.

(3) 가시덤불 사이에 등지 지어 새끼를 넣어두고, 춥고 그늘진 데서 암수 서로 기대어 서로 의지하네(結巢生子草棘間 雌雄相依寒並影)

— 王沂, 白翎雀, 『伊濱集』卷5.

(1)의 ‘相依’는 모두 “서로 돕고 의지하지 않으면 보전하기 어려운 관계, 즉 부모와 자식·형제와 같이 서로서로 의지하고 기댄다.”는 뜻으로 ‘相親’과 같은 말이다. (2)와 (3)에서 ‘의’는 “암수가 서로 사랑하고 기대고 의지하며 사는 모습”을 그렸는데, (3)의 흰깃공작은 암수가 함께 날아다니며 끝없는 애정을 과시하는 새로 알려져 있다. 사전적으로도 ‘依’는 사랑한다는(依之言愛也, 鄭玄箋) 뜻이고, ‘依依’는 思慕한다는 뜻이며(依依思慕之意, 『後漢書』馬援傳), ‘依依不捨·依依思戀’은 그리워하여 떨어지기 어렵다,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는(依依思戀之貌, 愁思也, 李陵, <答蘇武書>) 뜻이다. 그러니 <황조가>의 ‘相依’도 “사랑하다, 사모하다, 그리워하다, 떨어지기 어렵다”는 뜻일 터이니, ‘雌雄相依’는 꾀꼬리가 쌍을 이루어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는 애뜻한 모습을 묘사한다.

### 3) 念我之獨

(1) ‘念’

그간 ‘念’은 “외로운 이내 몸은/외로울사 이몸이야/외로운 이 내 몸은/외로울사 이 내 몸은/외로울사 이 내 몸”<sup>54)</sup>에서처럼 아예 번역하지 않거나, “나의 외롭을 생각함이어/생각하니 나는야 외롭구나./내 몸의 외로움 생각노니,”<sup>55)</sup> “생각느니, 나는 외로운 사람”<sup>56)</sup>에서처럼 “생각하다”로 풀이했다. 간혹 이를 “외로운 나를 비웃나니(念我之獨)”처럼<sup>57)</sup> ‘비웃다’로 해석하거나 ‘염’과 ‘독’을 모두 서술어로 잡

54) 순서대로 백철·이병기, 『국문학전사』(신구문화사, 1957), 42쪽; 장홍재, 「황조가의 연모대상」, 『국어국문학 연구논문집』(청구대학 국어국문학회, 1963), 103~104쪽; 任東權, 『韓國民謠史』(集文堂, 1964), 22쪽; 金承燦·權斗煥, 『古典詩歌論』(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87), 16쪽; 閔丙秀, 『韓國漢詩史』(大學社, 1996), 58쪽; 金東旭, 『國文學史』(日新社, 1988), 35쪽; 현종호, 『조선국어 고전시가사연구』(교육도서출판사, 1984), 54쪽.  
55)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신구문화사, 1993), 52쪽; 조동일, 『한국문학통사(1)』(지식산업사, 1994, 3판), 101쪽; 김홍규, 『韓國文學의 理解』(민음사, 1986), 37쪽.  
56) 고운기, 『가려 뽑은 고대시가』(현암사, 2007), 20쪽.  
57) 張德順, 『韓國古典文學의 理解』(一志社, 1973), 10쪽.

아 “생각하니 나는야 외롭구나(조동일)”로 풀기도 했다. 나아가 “雌雄이 相依하는 모습은 화합이요 질서에의 귀착이다. 유리왕이 이 느낌을 노래했다는 것은 비로소 내면세계를 성찰하고 인식했다는 것인데, 그 성찰의 표현이 곧 念이다”<sup>58)</sup>라고 의미를 확대하기도 한다. “念을 ‘생각하다’로 새기되, 주체를 나(我)로 보지 않고 誰로 보면 부자연스러움을 해소할 수 있다. 念의 주체를 ‘황조’에 대응되는 존재인 ‘토착민’으로 보고, ‘不德해서 외롭고도 외로운 나를 생각한다’면’으로 옮기자”<sup>59)</sup>는 견해나, “한스럽다, 나의 홀로 감이여”에서처럼 ‘念’을 “한스럽다”로 풀이<sup>60)</sup>한 것은 진보적이다. 문맥상 <황조가>의 ‘念’은 ‘我之獨’을 목적으로 하는 서술어임에 분명한데, 비슷한 용례는 다음과 같다.

- (1) 동쪽에서 봉황이 날아 왔다가,  
 왜 다시 높이 날아가는고?  
 대나무 열매 맺지 않아서,  
 네가 아침을 굶을까 **걱정스럽구나(念子忍朝飢)**<sup>61)</sup>
- (2) 이에 한 해가 다 저물었는데도  
 아직 돌아가지 못한 까닭에  
 마음이 걱정스럽고  
 나의 고독함도 **염려스러웠다(憂而念我之獨)**<sup>62)</sup>
- (3) 4월에 서릿발 날리니 내 마음 서글퍼지고(正月繁霜 我心憂傷)  
 백성들 사이에 뜬소문은 더욱 흉흉하니(民之訛言 亦孔之將)  
 내 외로움 구슬프고 마음의 근심 걱정이어라(念我獨兮 憂心京京)  
 내 소심함 애달프구나, 근심 걱정으로 병이 되네(哀我小心 癡憂以瘵)  
 — 『詩經』 小雅, 正月.
- (4) 지난 번 떠나올 제 따스한 4월이었건만(昔我往矣 日月方除)  
 언제나 돌아가려나, 이 해도 다 저물었구나(曷云其還 歲聿云莫)

---

58) 尹榮玉, 瑠璃王 類利와 黃鳥歌, 『韓國 古詩歌의 研究』(형설출판사, 1995), 205쪽.  
 59) 임주탁·주문경, 앞의 논문, 461쪽.  
 60) 이병주, 『한국 한시의 이해』(민음사, 1987), 39쪽.  
 61) “鳳皇從東來 何意復高飛 竹花不結實 念子忍朝飢” 杜甫, 述古三首, 『全唐詩』卷219, 4函 1冊 卷4.  
 62) “乃至歲將暮 而尚未得歸 故心憂而念我之獨也 上言日月其除 故下言 歲聿云莫 首尾相應也.” 張曰寧撰, 春秋春王正月考, 『春秋春王正月考』.

외로운 신세 **구슬프도다!** 일만 잔뜩 쌓였구나(念我獨兮 我事孔庶)

시름 가득한 이 마음, 한가로움이 그립도다(心之憂矣 憚我不暇)

— 『詩經』 小雅, 小明.

(1)에서 ‘念’은 竹實이 열리지 않아 아무 것도 먹지 못하고 훌쩍 날아가는 봉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말로, “哀憐, 可憐, 즉 가련하다, 슬프다, 가엾다, 애달프다, 걱정스럽다.”의 뜻으로 쓰였고, (2)에서는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도 돌아가지 못하는, 고독한 자신에 대한 근심과 걱정(故心憂而念我之獨也)”을 담고 있다. 또 (2)~(4)의 ‘念’은 모두 ‘憂·哀’와 짝을 이루며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하소연을 담고 있다. “밭머리에 흐르는 물, 산 아래로 내려갈 제, 내 한 몸 가엾어라! 정처 없이 떠도는구나.”<sup>63)</sup>에서도 ‘念’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애처로움을 담았다. “근심스런 생각”을 뜻하는 ‘憂念(憂慮)’, “걱정하다. 마음을 놓지 못하다”는 뜻을 담은 ‘念慮’, “마음에 두고 잊지 못하다”는 뜻의 ‘掛念(繫念)’, “근심이 가득하다”는 뜻의 ‘念恤’ 등도 ‘念’이 마음에 걸리고 걱정스럽다는 뜻으로 쓰인 예들이다. 뿐만 아니라 “가솔비건댄 아히 저며 아롬 업서 아비 브리고 逃亡하야 가 다른 나라해 머리 가 여러 나라해 두루 든뇨미 쉬 나뉜 히어늘 그 아비 시름하야 念하야 四方에 推尋하야 求하디니(譬如童子幼稚無識 捨父逃逝 遠到他土 周流諸國五十餘年 其父憂念 四方推求)”(『法華經諺解』 234a)의 예도 있으니 <황조가>의 ‘念’은 “외롭고 쓸쓸한 자신의 신세와 처지”가 마냥 근심스럽고 처량하다는 자기 연민을 담고 있다.

## (2) ‘我之獨’

‘我之獨’의 경우 “피꼬리가 서로 의지하는 광경을 보고 한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처지와 그에 따른 비애의 정서를 갖게 된 것이고, 피꼬리와 내 정서의 불일치에서 오는 乖離되고 고독한 감정을 표현”했다는<sup>64)</sup> 데 이견이 없다. 여기서 ‘我’는 시적 화자이고, ‘之’는 “이것은 누구의 과실인가(是誰之過與?)”(『論語』 季氏), “그녀석이 나의 계책을 쓰지 않아(豎子不用臣之策)”(『史記』 淮陰侯列傳)나 앞항의 예문 (2) “마음이 걱정스럽고 나의 고독함도 염려스러웠다(心憂而念我之獨也)”의 쓰

63) “隴頭流水 流離山下 念吾一身 飄然曠野.” 樂府詩集, 橫吹曲辭, 隴頭.

64) 金學成, 『韓國古典詩歌의 研究』(圓光大學校 出版局, 1980), 275쪽.

임처럼 단어 사이의 結句를 나타내는 격조사이며 ‘獨’은 “고독, 외로움”을 뜻한다. 그러므로 ‘아지독’은 “형제·자매·배우자 없이 나 홀로”라는 ‘孑孑單身, 獨身, 獨子, 獨居, 獨處’의 뜻이며, 모든 곳에서 혼자라는 ‘獨一’, 협조 세력 없이 단독으로 부러나가야 하는 ‘獨運’의 뜻으로 확장될 수 있다.

#### 4) 誰其與歸

##### (1) ‘誰其’

‘誰’는 의문대명사로 사람을 묻는데 쓰이고 주어·술어 혹은 목적어가 되는 것임에 분명한데 문제는 ‘其’이다. 그동안 ‘其’는 대부분 따로 풀이하지 않았고, 가끔 “그 누구에게 의지할까?”로 풀었다. 간혹 의문사 뒤에 붙는 강조사로 보기도 했다. ‘誰其’는 다음과 같은 용례를 가진다.

- (1) 무릇 임금은 백성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백성이 죽하면 왕에게는 비록 부족함이 있어도 진실로 부족하지 않은 것이고, 백성이 진실로 부족하다면 임금이 스스로 만족하더라도 함께 만족하며 살 이가 누가 있겠는가? (而誰其與共足哉)<sup>65)</sup>
- (2) 1년이 지나자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내가 논밭을 일구고 의복을 얻어 살 수 있게 되었는데, 子産이 죽었으니 내가 앞으로 그와 함께 살 수 있겠는가!’ 하였고, 3년이 지나자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내가 아이들이 있으면 자산이 그를 가르쳐 기르고 내가 논밭이 있으면 자산이 그를 키워주었는데 자산이 죽었으니 누가 그 뒤를 이을 것인가!’(誰其嗣之)’하였다.<sup>66)</sup>

먼저 (1), (2)의 ‘誰其’는 “만일 황천에 이르는 길을 뚫어 마침내 서로 만나게 되더라도 누가 그렇지 않다고 하겠는가?”<sup>67)</sup> 의 ‘其誰’처럼 의문대명사 앞뒤에 놓이는 강조사일 수 있다. ‘誰其’에 “만족하다(足), 잇다(嗣)”가 이어지므로 “도대체 누

65) “蓋君之所與者 民也 民足矣 則君雖不足 亦無與其不足者 民苟不足 則君雖自足 而誰其與共足哉.” 章如愚 撰, 『羣書考索』別集, 卷20.

66) “一年而人歌之曰 取我田疇而伍之 取我衣冠而褚之 孰殺子産 吾其與之 三年而人又歌之曰 我有子弟 子産教之 我有田疇 子産殖之 子産而死 誰其嗣之?” 『舊唐書』列傳, 卷98, 列傳48, 盧懷慎.

67) “若闕地及泉 隨而相見 其誰曰不然.” 『春秋左傳』卷3, 隱公 元年.



가 더불어 만족하겠는가?”, “과연 누가 그 뒤를 이을 수 있겠는가”로 풀이해야 할 것이다. 한편 ‘其’는 “흉년이 들면 사람들은 **장차** 갈 곳을 잃고 떠돌며 ‘야! 화평 하던 때가 그리구나!’라고 할 것이다.”<sup>68)</sup> “**이제** 殷나라가 망하려 한다.”, “가르침이 바르지 않으면 다스리는 일이 장차 순조롭지 못하다”<sup>69)</sup>에서와 같이 ‘앞으로, 장차(將)’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大東韻府群玉』에서 ‘誰與其歸’라 하여 『삼국사기』와 달리 ‘其’를 서술어 ‘歸’ 앞에 둔<sup>70)</sup> 것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면 <황조가>의 ‘其’ 또한 “동사 앞에 놓이는 부사로 행위나 상황이 머지않아 발생할 것을 나타내므로 ‘장차, 막…하려 하다’라고 해석될 여지<sup>71)</sup>가 있다. 그러므로 아래 항의 예문(3) “누구와 더불어 옳고 그름을 논할 것인가!(誰其與道是非乎)”와 배열이나 쓰임이 흡사한 <황조가>의 ‘誰其’는 “도대체 누구와 함께”, 혹은 “장차 누구와 함께”라는 두 가지 해석 가능성을 함께 열어두고자 한다.

## (2) ‘여귀(與歸)’

그간의 연구에선 ‘與歸’를 주로 “함께(같이) 돌아가리?(돌아갈꼬?)”<sup>72)</sup>로 풀이해 왔고, 몇몇은 “살아갈까(살아가잔 말고!)”<sup>73)</sup>와 함께 가리(그 뉘와곰 함께 갈거나) 누가 있어 함께 가리”로 읽었다.<sup>74)</sup> 나아가 “歸는 白·止·帚(婦)의 합성어로서 부인이 남편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삼고 이에 머문다는 뜻으로, 유리왕의 원작 가사에서는 ‘쌍쌍이 맞잡고 곁혼(嫁)하겠는가?’였던 것이 『詩經』 형식 4언으로 번역하면서 ‘歸’로 낙착되었다”<sup>74)</sup>라고 어원을 풀기도 했다. ‘歸’를 ‘歸依, 歸附, 歸居,

68) “必有凶年 人其流離 嗚呼 噫嘻時耶” 李華, 弔古戰場文; 蔡世遠 編, 『古文雅正』 권9.

69) “又曰 其猶將也.” 『尚書日記』卷3; “今殷其淪喪-淪 沒也 言殷將沒亡.” 『書傳』卷8, 第17 微子; “教訓不善 政事其不治-郭沫若集校 謂政事將不治也.” 『管子』卷8, 第20 小匡.

70) “琉璃王 有二姬 曰雉姬 曰禾姬 二姬爭寵 雉姬慚恨亡歸 王親追之 息林下見黃鳥飛集 歌曰 翩翩黃鳥 雌雄相依 念我之獨 誰與其歸(勾史).” 權文海, 『大東韻府羣玉』 권11, 上聲 篠.

71) 金元中(編著), 『虛辭辭典』(玄岩社, 1989), 128-132쪽 참조.

72) 李秉岐·白鐵, 『國文學全史』(新丘文化社, 1957), 42쪽; 金東旭, 앞의 책, 35쪽; 현중호, 『조선국어 고전시가사연구』(교육도서출판사, 1984), 54쪽; 許文燮·李海山(편), 『古代歌謠 古代漢詩』(民族出版社, 1988), 113쪽이 대표적이다.

73) 金承璨·權斗煥, 『古典詩歌論』(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87), 16쪽; 장홍재, 앞의 책, 105쪽; 장덕순, 앞의 책, 10쪽; 정병욱, 앞의 책, 52쪽; 고운기, 앞의 책, 20쪽.

74) 權寧徹, 『黃鳥歌新研究』, 『國文學研究』, 1집(효성여대 국문과, 1968); 權寧徹, 『古詩歌研究』(慶山

歸巢'의 '귀'와 같이 새겨 “나무 위 등지로 모여드는 황조와 달리 주변사람들에게 보금자리가 돼주지 못하는 자신의 부덕함을 한탄하는 말로, ‘그 누가 붙좃으랴’로 읽어야 한다”<sup>75)</sup>하기도 했다.

(1) 자산(子産)이 정(鄭)나라의 대부가 된 지 1년이 지나자 어린애들이 못된 장난을 하지 않고, 반백 노인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어린애들이 밭을 가는 일이 사라졌다. 2년이 지나자 시장에서는 값을 에누리 하지 않고, 3년이 지나자 밤에 문을 잠글 일이 없어지고 사람들은 길에 떨어진 물건도 줍지 않았다. 자산이 26년 만에 세상을 떠나니 장정들과 노인들까지 어린애처럼 울면서, ‘자산이 우리를 버리고 죽었다단 말인가. 백성들은 앞으로 어찌 살아야한단 말인가?(子産去我死乎 民將安歸)’라고 말했다.”

— 『사기』 권119, 순리열전59.

(2) 조정에서 벼슬할 때는 백성들을 걱정하고, 멀리 떨어진 향촌에 있을 때는 임금을 걱정한다. 나아가도 걱정하고 물러나도 또한 근심하니 이리다 언제 나 즐거울까! 그가 확신에 차서 말하기를, ‘천하의 걱정을 먼저 하고 천하의 즐거움을 뒤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런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겠는가?(吾誰與歸)<sup>76)</sup>

(3) 醫僧이 두 손 모아 절하면서 물러나면서 ‘저의 재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하니, 老親이 나와 통곡하기를, ‘이 늙은이는 앞으로 어찌 살아간단 말이나(吾老身將安歸乎)’ 하고 여러 아우들은 그를 둘러싸고 ‘앞으로는 누가 나와 우애를 나눌 것인가’ 하며 통곡하였다. 안팎에 모인 친구들은 ‘나는 앞으로 누구와 더불어 우정을 나누고, 누구와 더불어 옳고 그름을 논할 것인가!(誰其與道是非乎)’하여 통곡이 끊이지 않았다.<sup>77)</sup>

위에서 ‘歸’는 모두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주고 의지하면 서/믿고 따르며 살아갈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귀’의 이 같은 쓰임은 “趙文子

大學校 出版部, 1997), 64쪽.

75) 임주탁·주문경, 앞의 논문, 461쪽.

76) “居廟堂之高 則憂其民 處江湖之遠 則憂其君 是進亦憂退亦憂 然則何時而樂耶 其必曰 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歟 噫 微斯人 吾誰與歸.” 范仲淹, 岳陽樓記; 祝穆, 『古今事文類聚』續集 권7.

77) “醫者交揖而退曰 吾術窮矣 老親哭於前曰 吾老身將安歸乎 諸弟妹環哭於前曰 誰其友愛我乎 朋友親舊聚哭於內外曰 吾誰與相親愛 誰其與道是非乎 哭聲連連不止.” 張九成 撰, 寄醫僧序, 『橫浦集』卷16.

가 叔向과 九原에 있을 적에 ‘죽은 자가 만약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나는 누구에게 의지하며 살까?(吾誰與歸)’하니 숙향이 陽子라고 답했다”<sup>78)</sup>는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황조가>에서는 ‘與歸’로 결합되었으니, “군자가 좋은 계획을 세운다면 소인들도 의지하게 될 길세(小人與屬)”<sup>79)</sup>의 ‘與屬’과 같이 “친하다, 의지하다”의 뜻으로 읽어야 하겠다. 그러므로 <황조가>의 ‘誰其與歸’는 “누구와 함께 돌아간다.”는 뜻보다는 “누구와 더불어 살아갈꼬!”의 의미, 즉 누구와 마음을 나누고 뜻을 함께 하며 살아갈 지 막막하다는 탄식을 담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황조가>의 문맥을 다시 풀고 다듬으면, “포르르 나는 꾀꼬리는(翩翩黃鳥)/암수 서로 애뜻한데,(雌雄相依)/외로운 내 신세 가련해라(念我之獨)/누구와 함께 살아갈꼬?(誰其與歸)”가 된다.

## 2. <황조가>의 성격

그동안 <황조가>의 성격에 대해 여러 논의가 진행되어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었다.

- (1) 신화적인 질서가 무너지면서 가치관의 전반적인 혼란이 일어났는데, 해명 태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게 된 것과 같은 이해 단절이 <황조가>에도 나타난다. 자아와 세계의 동질성이 흔들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자기 고독을 생각하고 일방적인 사랑노래를 불렀던 것인데, 불리도 해결이 없는 노래이니 이것이야말로 서정시가 되고 말았다.<sup>80)</sup>
- (2) ① 유리명왕을 중심으로 한 禾姬와 雉姬의 相爭도 근대 연애지상주의자들의 삼각관계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화희가 대표하고 치희가 대표하는 종족간의 대립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황조가> 자체도 치희에 대한 유리명왕의 개인적 미련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종족간의 相爭을 화해시키려다가 실패한 酋長의 嘆聲으로서 이해해야 할 것이 아닌가? 『삼국사기』의 문면에 구애되어 씨족사회의 영웅 유리명왕을 연정에 사로잡힌 痴人으로 대접한다면 이것은 고전을 정당하게 해독하는 길이 아닌 것 같다.<sup>81)</sup>

78) “趙文子與叔向遊於九原曰死者若可作也吾誰與歸叔向曰其陽子乎.” 『春秋左傳』紀事本末, 권31.

79) “君子有微猷小人與屬-鄭玄箋 君子有美道以得聲譽則小人亦樂與之而自連屬焉.” 『詩經』小雅 角弓.

80) 조동일, 앞의 책, 101쪽; 조동일, 『한국문학통사』1(지식산업사, 2005, 제4판), 108쪽.

- ② 禾姬의 禾가 婁, 雉姬의 雉가 穽이고 쟁투에서 결국 叱희가 떠났으니 유리왕 조는 수렵경제 생활 체제로부터 농경경제 생활체제로 발전되던 역사적 사실을 신화적으로 투영한 것이다.<sup>82)</sup>
- ③ 화희는 곡식이니 그 자리 그대로 땅에 뿌리내린 불박이인 우리나라 농사짓는 민족의 부족이요, 叱희는 새이니 떠돌이인 유목민족의 부족임을 짐작하게 한다.<sup>83)</sup>
- (3) <황조가>는 마음에 드는 처녀에게 사랑을 호소했다가 패배의 고배를 마시고 견잡을 수 없는 슬픔에 빠진 외로운 총각의 심정, 거절당한 남자의 간절한 求愛曲이다.<sup>84)</sup>

(1)에서는 神話的 질서가 무너져 가치관이 흔들리고 자아와 세계의 동질성이 약해진 시대의 작품이라 했고, (2)의 ①·②·③에서는 화희와 叱희를 부족의 상징체로 보고 그들의 다툼을 부족 간의 대립으로 이해하거나 역사발전의 한 단계로 이해하는 시각을 피력했다. (3)에서는 원시 의례에서 구애에 실패한 총각의 구애 노래로 이해하고 있다. “왕비 송씨의 죽음을 모의적·상징적으로 이해하고, 유리왕 조는 송씨가 離宮에 유폐되고 상징적인 죽음을 거쳐 풍요의 생산 능력으로 신성성을 확보하는 再生祭儀 과정을 담은 것”이라 하면서<sup>85)</sup> 松讓妃의 죽음을 모의적인 것으로, 화희와 叱희의 싸움과 유리왕의 田을 각각 “계절제의에서 이루어지는 여름과 겨울의 싸움,” “의례적인 것”으로 보고, <황조가>를 풍요 기원의 집단 서정으로 보는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다.<sup>86)</sup>

그러나 고구려 2대 유리왕이 역사적 실존인물이고, 혼인풍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松讓妃와 大武神王 관계에 대한 회의도 풀리는데 『삼국사기』에 실린 유리왕<sup>87)</sup>

81) 李明善, 『朝鮮文學史』(朝鮮文學社, 1948), 16쪽.  
 82) 金承塚, 『韓國上古文學研究』(第一文化社, 1978), 13쪽.  
 83) 이병주, 앞의 책, 39쪽.  
 84) 정병욱, 앞의 책, 56쪽.  
 85) 許南春, 앞의 논문, 155~162쪽.  
 86) 허남춘, 「고대시가의 주술성과 제의성」, 김학성·권두환, 『新編 古典詩歌論』(새문사, 2002), 63~65쪽.  
 87) “感而歌를 근거로 유리왕이 직접 짓지 않고, 민요나 다른 사람의 노래를 단지 부르기만 했다고 하기도 했으나, 유리왕의 琉璃가 皮꼬리를 뜻하는 ‘鸚留·栗留·流離’에서 왔음을 감안하면 유리왕은 皮꼬리왕인 셈인데 그가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은 皮꼬리 노래, 즉 <황조가>를 지은 입금으로 기억되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의견[정민, 「새를 통해 본 고전시가의 몇 국면」, 『韓國詩歌研究』,

관련 기록이나 “(유리)왕이 일찍이 나무 밑에서 쉴 때 꾀꼬리들이 날아와 모이는 것을 보고 느낀 바가 있어 노래하기를…”이라 한 기록의 신빙성<sup>88)</sup>을 거론할 필요는 없다. 이에 유리왕 당시의 역사적 사실과 관련하여 <황조가>의 의미와 작품 성격을 밝히고, 그 대립구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黃鳥	·····	(雌雄)	翩翩	相依
⇕				⇕
我	·····		我之獨,	念

꾀꼬리 암수가 짝을 지어 다정하게 나는 모습이 <황조가>의 시적 모티프가 되어, 자연물(黃鳥)과 나(我)의 대조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암수가 짝을 이루어 날아간다는 뜻의 ‘翩翩’은 나의 외롭고 고독한 신세를 뜻하는 ‘我之獨’과 대치되고, 내 신세에 대한 느낌은 “可憐하다, 哀憐하다, 처량하다, 걱정스럽다”라는 뜻을 가진 서술어 ‘念’에 자기연민으로 녹아있다. 암수가 짝지어 사랑을 속삭인다는 뜻의 ‘雌雄相依’는 나의 처량함을 자조적으로 탄식한 ‘念’과 상대어를 이루면서 중국엔 “앞으론 누구와 함께 살아갈꼬!”라는 막막한 심정을 담은 ‘誰其與歸’로 이어진다. <황조가>의 주제의식은 ‘念我之獨’·‘誰其與歸’에 잘 담겨 있는데 이 두 구절에는 치회에 대한 유리왕의 애절한 사랑, 그리고 이별에 대한 상실감, 의지할 데 없이 외롭고 쓸쓸하고 寔寔한 심정, 즉 극도의 ‘고독’·‘상실감’·‘자기 연민’을 담고 있다.

치회와의 이별을 계기로 자신의 처지를 돌이켜 본 것은 사실이지만, 유리왕의 이 모든 감정이 오로지 치회 때문인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황조가>를 부른 보다 근본적인 계기는 유리왕 내면의 깊은 고독감에 있기 때문이다. 유리왕의 고독은 그 가족사에서부터 비롯한다. 형제 하나 없이 부여에서 자랐고, 아버지 주몽과는 어릴 적부터 헤어져서 “애비 없는 자식이라서 이처럼 버릇이 없다”<sup>89)</sup>는 괘시

15(韓國詩歌學會, 2004), 19쪽], “儒理는 세상이라는 뜻의 고유어 ‘누리’이고 ‘弩禮, 儒禮’도 이와 같은 낱말의 音讀이라”[김무식, 『옛글 속의 우리 문화 옛보기』(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4), 52쪽]한 유리왕 인명유래 논의도 연구의 진척을 돕고 있다.

88) 鄭武龍, 「黃鳥歌 研究(1)」, 『靑泉 康龍權博士 頌壽紀念論叢』(同 刊行委員會, 1986), 326쪽; 鄭武龍, 「黃鳥歌 研究(2)」, 『國語國文學 論文集』, 7집(東亞大學校 文科大學 國語國文學科, 1986), 62쪽.

89) “婦人罵曰 此兒無父 故頑如此 類利慙 歸問母氏.”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琉璃王.

와 모욕을 감수하며 살았다. 우여곡절 끝에 고구려로 들어와 주몽을 만나지만 곧 사별했고, 첫 번째 妃인 松讓의 딸과도 1년여 만에 사별했으며, 왕위를 계승하면서는 주몽의 새 가족인 沸流·濫祚와도 결별해야 했다. 유리왕은 이와 같은 가족 사적 고독을 견뎌내며 ‘菟田(田獵)’ 등을 통해 아직 채 정비되지 못한 초기 고구려를 결속해 나가야 하는 입장에 있었다.

정치적 고독도 만만치 않았다. 유리왕은 건국 주체가 아니라 건국 후 부여에서 들어왔으니 출발부터가 고독했고, 그의 유입으로 비류·온조가 많은 백성과 함께 이탈했으니 그 분열·갈등의 기간 동안 소외감도 컸을 것이다. 이후 黃龍國·부여국과의 외교 관계나 국내성 천도 등의 문제에 대해 유리왕과 자식들의 의견 충돌이 잦았다. 이에 태자 都切을 부여에 볼모로 보내려는 뜻을 접었고, 國內城 천도 후에도 태자 解明은 토착세력의 근거지인 졸본에 남아 황룡국과 미묘한 외교적 마찰을 일으켰다.<sup>90)</sup> 이는 유리왕과 고구려 토착세력 간의 견제와 알력이 오랫동안 잔존하고, 왕위 계승 문제나 외교 문제 등에서 유리왕이 주변 정치세력을 장악하는 과정이 순조롭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고구려와 부여의 문화·풍속이 흡사했으므로 고구려도 “투기하는 여자를 더욱 미워하여 죽여 다시 산 위에 시체를 버려둔다.”<sup>91)</sup> “질투하는 부인은 모두 죽였다. 투기하는 것을 더욱 미워하여 죽이고 나서 그 시체를 남산 위에 버려서 썩게 하는데, 친정집에서 소와 말을 바쳐야 시신을 내어준다.”<sup>92)</sup>는 강력한 妬忌 금지법과 처벌 규정도 공유했을 것이다. 中川王 4년 “왕 자신이 총애하여 小后로 세우려던 貫那부인이 왕후 椽氏를 참소하여 투기한다는 이유로 사실 여부도 묻지 않고 가죽주머니에 넣어 西海에 던져 버린” 사건도 있는데,<sup>93)</sup> 치회를 투기한 화회를 처벌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유리왕이 아직 토착세력인 鶻川을 법으로 엄히 다스릴

90) 김기홍, 『고구려 건국사』(창작과비평사, 2002), 78~79, 102쪽.

91) “尤治惡妒婦 既殺 復尸於山上.” 『後漢書』卷85, 東夷列傳 第75, 夫餘國.

92) “婦人妒 皆殺之 尤憎妒 已殺 尸之國南山上 至腐爛 女家欲得 輸牛馬乃與之.” 『三國志』卷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夫餘傳.

93) “四年 夏四月 王以貫那夫人置革囊 投之西海 貫那夫人 顏色佳麗 髮長九尺 王愛之 將立以爲小后 王后椽氏 恐其專寵 乃言於王曰 妾聞西魏求長髮 購以千金 後 王獵于箕丘而還 夫人將革囊迎哭曰 后欲以妾盛此 投諸海 幸大王賜妾微命 以返於家 何敢更望侍左右乎 王問知其詐 怒謂夫人曰 汝要入海乎 使人投之.”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中川王 4年.

만큼의 권위를 갖추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결혼 생활에서의 고독까지 더해진다. 유리왕과 혼인한 松讓의 딸도 鵲川人的 딸도 모두 기세등등한 고구려 토착세력으로서 유리왕과는 상호 필요에 의해 맺어진 정략적 관계였다. 元妃가 죽은 후 姉亡妹續의 풍속에 따라 송양의 다른 딸을 비로 삼았으니 이 또한 정치적 혼인 관계이다. 치희에 대한 화희의 질투심과 욕설은 유리왕에게서 받은 상대적 애정 결핍에서 비롯했을 것이니, 禾姬에게 “漢나라의 천한 종년(汝漢家婢妾)”이라는 욕설을<sup>94)</sup> 듣고 한으로 가던 雉姬가 유리왕의 총애를 입었음에 분명하다.

유리왕대는 前漢 末~後漢 初로 현도군이 오히려 약화되던 때였고, 중국이 이민족·他國 문제에 대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던 때였으니,<sup>95)</sup> 유리왕이 치희의 亡歸가 漢나라와의 갈등으로 비화될까 우려했을 것 같지는 않다. 화희의 말대로 치희가 漢의 婢妾 출신이었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다만 치희는 유리왕처럼 외부에서 들어와 고구려 내에서의 입지가 약하고, 다른 여인들과 달리 정치적 배경도 갖지 않았으니 서로의 외로움을 어루만지며 동병상련의 정을 나누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유리왕이 치희의 귀국 소식을 듣고 곧바로 쫓아가고, 데려오지 않고 순순히 西漢으로 보낸 것은 치희가 고구려에서 겪어 왔고 또다시 겪어야 할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는 연민과 사랑에서 비롯했다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황조가> 창작에는 유리왕의 인간적 면모도 한몫을 했다. 신의 경지에 도달한 황숨씨, 공중에 솟구쳐 창구명으로 새어드는 햇빛을 막아내는 神聖(『東明王詩』)을 보면 유리왕 전승에도 신화적 측면이 남아 있지만, 유리왕 서시는 신화적 각색이 비교적 적은 역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첫째, 유리왕은 朱蒙과 禮氏 사이에서 평범하게 출생하고, 둘째, “아비 없는 자식인 까닭에 버릇이 없다”는 汲婦의 말에도 상처를 입고, 셋째, 주몽이 남기고 간 칼 토막을 찾아 온 산을 헤매고, 넷째, 볼모를 요구하는 扶餘나 노략질을 일삼는 鮮卑族, 해명과 마찰을 일으킨 黃龍國과의 불

94) ‘汝漢家婢妾’은 “后 妻賤而婢妾貴 太子卑而庶子尊 相室輕而典謁重 如此則內外乖 內外乖者 可亡也”(『韓非子』 권1, 제8 亡徵)에서처럼 “漢 왕실의 후궁이나 시녀”를 뜻하고, “周나라가 늦게야 烈王을 弔問한 일을 꾸짖자 齊 威王이 안색을 바꾸면서 ‘나를 꾸짖다니, 네 어머니는 종년이다’”(『威王 勃然怒曰 叱嗟 而母婢也 卒爲天下笑, 『戰國策』 권20, 趙策3, 秦圍趙之邯鄲)에서와 같은 모욕적인 욕설이다.

95) 權五重, 『漢과 高句麗의 關係』, 『高句麗研究』, 14(高句麗研究會, 2002), 246-247쪽 참조.

화와 외교관계를 고심한다. 다섯째, 아들 解明과의 갈등에 대해 “지금 왕(유리왕)은 처음부터 가르치지 못하고 그가 악하게 되자 심하게 미워하여 결국 죽이고야 말았으니 아버지는 아버 노릇을 못하고 자식은 자식노릇을 못했다”<sup>96)</sup>는 史評을 가지고, 여섯째, 사랑을 다루는 여인들을 화해시키지 못하고 涼谷의 東西에 두 궁을 짓고 살게 하는 지아버의 모습을 가진다. 유리왕은 나약하고 우유부단하며 평범한 인간상<sup>97)</sup>이니, 모욕적인 화회의 말에 상처를 받은 치회를 좇아간 것이나 <황조가>를 지어 자기 고민과 연민을 드러낸 것은 이 같은 인간적 면모의 발현이라 하겠다.

<황조가>처럼 자연물과 자아의 상황을 대조시키며 주제를 부각시키는 서술방식은 오랜 전통을 가진다. 이별 상황에서 정답게 짝을 짓는 자연물을 부러워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정감이기 때문이다. 『詩經』 國風의 「葛生」<sup>98)</sup>이 그렇고, “꾸욱 꾸욱 물수리는 강가 모래톱에서 우는데, 대장부의 좋은 배필 아리따운 아가씨는 어디에 있는고,” “송골매 썩썩 날아, 북녘 울창한 숲으로 가는데, 입을 뵈지 못하니 삼가 근심되누나. 어찌하여, 어찌하여, 나를 진실로 잊으셨나!,” “무수리 어살에 있고 학은 수풀에 있는데, 오직 임께서는 내 맘을 괴롭히시네. 원앙새 어살에 앉아 왼쪽날개 움츠리는데, 야속한 우리임은 마음 자꾸 변하시네.”<sup>99)</sup> 등은 정다운 새들을 보며 입을 그리워하고, 자신의 이별을 탄식하는 민요다.

96) “今王始未嘗教之 及其惡成 疾之已甚 殺之而後已 可謂父不父 子不子矣.” 『三國史記』卷13, 고구려 본기, 유리명왕 28년 춘3월.

97) “유리왕은 외세에 대하여 되도록 화해·화평을 추구하고, 주변국가에 화해적이거나 나약한 면모를 보였으며, 이 때문에 태자까지 죽음에 이르게 했다. 유리왕의 나약하고 굴욕적인 모습이 화회·치회 설화의 형성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학성, 「고대가요와 토착적 사유체계」, 『대동문화연구』, 22(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88); 김학성, 『한국 고시가의 거시적 탐구』(집문당, 1997), 30~31쪽.

98) “취이 자라 가시나무를 덮었고 덩굴은 들에 뻗었는데(葛生蒙楚 藋蔓于野)/내 님 여기에 없기에 함께 할 누구도 없이 혼자 산다네.(予美亡此 誰與獨處)/취은 자라 멧대추나무를 덮었고 덩굴은 저쪽으로 뻗었는데(葛生蒙棘 藋蔓于域)/내 님 여기에 없기에 함께 할 누구도 없이 혼자 지낸다네.(予美亡此 誰與獨息)/빨 베게 빛나고 비단이불 고운데,(角枕粲兮 錦衾爛兮)/내 님 여기에 없기에 함께 할 누구도 없이 홀로 밤을 지새우네.(予美亡此 誰與獨旦)/여름 낮 겨울밤,(夏之日 冬之夜)/백년 뒤 무덤에서라도 함께 살리라.(百歲之後 歸于其居)/겨울밤 여름 낮(冬之夜 夏之日)/백년 뒤 광속에서라도 함께 살리라(百歲之後 歸于其室).”

99) “關關雎鳩 在河之洲 窈窕淑女 君子好逑.” 『詩經』, 國風, 周南, 關雎; “駛彼晨風 鬱彼北林 未見君子 憂心欽欽 如何如何 忘我實多.” 『詩經』, 國風, 秦南, 晨風; “有鶩在梁 有鶴在林 維彼碩人 實勞我心 鴛鴦在梁 戢其左翼 之子無良 二三其德.” 『詩經』, 小雅, 魚藻之什, 白華.



- (4) 皇孫이 豊吾田津姬와 침상에 들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임신하니 황손이 의심하였다. 마침내 火酢芹命을 낳고 이어 火折尊—다른 이름은 彦火火出見尊—을 낳았다. 황손의 아들임이 곧 사실로 밝혀졌으나 豊吾田津姬는 황손을 원망하여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다. 황손이 이를 걱정하여 노래를 지었다. “沖의 藻 갖에는 물러와도 寢床에는 오지 않는 건가. 濱千鳥.”(坂本 등은 이를 “면 바다의 藻는 파도 따라 해변으로 오는데, 사랑하는 처는 내 곁에 오지 않네. 해변의 갈매기여, 돌이 있는 네가 부럽구나”라고 풀이했다).<sup>100)</sup>

위는 皇孫이 아내 도요아타쓰히메(豊吾田津姬)의 순결을 의심하자, 그 아내가 분노와 원망 때문에 황손과 다시 동침하지 않으니 황손이 다정한 해변 갈매기를 부러워하면서 자신의 외로운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황조가>를 닮은 다음의 시조도 빼 놓을 수 없다.

- (5) 花灼灼 범나의 雙雙 柳青青 피꼬리 雙雙  
 늘름승 길름승 다 雙雙 헛다마는  
 엇디 이 내 몸은 혼자 雙이 업느니

— 정철, 『松星』 75, 『역대시조전서』 3282.

- (6) 화작작 범납의 쌍쌍 류청청 싯솔이 쌍쌍  
 바히 岩上에 쥐도 双双 신내 溪邊에 가계계도 雙雙 닳는 새 길벌어지 오로  
 다 雙雙이로되  
 엇덧타 獨宿空房에는 鰥寡孤獨을로 윗짝이 되어 잇는고

— 『海一』 590.

언제나 서로 의지해서 쌍쌍이 나는 ‘피꼬리’와 비교하면서 ‘고독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雌雄相依하는 피꼬리를 동경하여 근심하고 눈물짓는 詩想이 여러 작품에 공히 보임은 <황조가>가 민요적 보편성에 근거했음을 뜻한다. <황조가> “내 외로운 신세, 가련하구나(念我之獨)”에는 치희와의 이별을 계기로 북반쳐 오른

100) “皇孫因幸豊吾田津姬 則一夜而有身 皇孫疑之 遂生火酢芹命 次生火折尊 亦號彦火火出見尊 母誓已驗 方知實是皇孫之胤 然豊吾田津姬 恨皇孫 不與共言 皇孫憂之 乃爲歌之曰 ‘沖の藻は 浜邊に 寄りつくが、(わか妻は) 共寢の床も 与えないよなあ 浜千鳥よ (いつも番いでいるお前たちよ)’(山田宗睦 譯, 『日本書紀』卷2, 神代 下; 成殷九 譯註, 『일본서기』(정음사, 1987), 84쪽).

유리왕 내면의 고독 의식을 담았고, ‘앞으로는 누구와 더불어 살아갈꼬!(誰其與歸)’에는 국내외 관계, 외래 세력과 토착세력의 알력 속에서 미처 왕권을 다지지 못한, 현실적·정치적 좌절감이 깔려 있고,<sup>101)</sup> 대내외적으로 복잡다단한 정치 현실에서 고독을 달랠 상대도 없이 그저 ‘견제와 정략’ 속에서 살아야 하는 막막한 심정을 담았다. 이를 다정하게 사랑을 나누는 피꼬리와 대조시켜 묘사함으로써 신세 한탄은 더욱 더 애조를 띤다.

요컨대, <황조가>는 자아의 정서를 단순하고 소박하게 표출하는 방식을 취했기에 내용·형식면에서 민요적 전형성이 강하다.<sup>102)</sup> 즉, ‘정다운 자연물—외로운 자아’를 대조시키는 보편적 구조에다 치희와의 이별을 계기로 새삼 절감한 자기주변과 정치상황에 대한 성찰, ‘고독·상실감·자기 연민’ 등의 내면을 매우 진솔하게 형상화하였고, 전승·기록 과정에서 당대의 文化的·詩的 관습에 따라 동아시아의 공통 文語로 정착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 IV. 마무리

유리왕의 妃 松讓女는 동왕 3년에 죽었는데, 유리왕 23년에 태어나 3대 대무신왕의 어머니가 송양녀라 기록되어 『삼국사기』 해당 條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이는 거란·여진 등에 보편적이던 ‘姉亡妹續’(언니가 죽으면 여동생이 그 자리를 잇는 제도)라는 혼속으로 이해된다. 또 유리왕의 ‘王田於箕山’에서 ‘田’은 ‘사냥(田獵, 蒐田)’으로, 왕이 군사 훈련·민정 시찰·주변국 복속 등을 통해 국가적 결속을 다지던 행위를 말한다. 고구려 초기에 유리왕은 아직 국내·외 관계가 안정되지 못하고, 토착 건국세력 속에서 채 왕권을 다지지 못한 상태에서, 온조·비류의 이탈 이후 국내의 분열을 수습하고 정략혼인을 통해 구성원의 화합을 추구하고, 주변국을 정벌하며 기반을 닦아야 하는 입장이었다.

<황조가> 해독에서 되짚어야 할 부분은 ‘念’·‘誰其’·‘歸’등인데, ‘念’은 竹實 이 열지 않아 그냥 돌아가는 봉황에게 “네가 아침을 굶을까 걱정스럽구나(念子忍

101) 성기옥·손중흠, 『고전시가론』(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6), 27쪽 참조.

102) 김학성, 「<黃鳥歌>의 작품 성격」, 『한국고전시가작품론(1)』(집문당, 1992), 29쪽 참조.

朝飢)”(杜甫, 述古三首)/한해가 저물어도 돌아가지 못해 “나의 고독함도 염려스러웠다(故心憂 而念我之獨也)”를 통해 볼 때 “哀憐·可憐하다, 걱정하다, 염려하다”로 풀이해야 하고, ‘誰其’는 “도대체 누가”라는 강조의 뜻으로도 “자신이 죽었으니 누가 장차 그 뒤를 이을 것인가(誰其嗣之) 하였다”에서처럼 ‘장차(앞으로)’라는 뜻으로도 풀 수 있다. ‘歸’는 “자신이 우리를 버리고 죽었다 말인가. 백성들은 앞으로 어찌 살아야한단 말인가?(子產去我死乎 民將安歸)”에서처럼 “지내다, 살아가다”로 풀이하는 것이 낫겠다.

이에 따라 <황조가>의 문면을 다시 풀고 다듬으면, “포르르 나는 피꼬리는(翩翩黃鳥)/암수 서로 애뜻한데,(雌雄相依)/외로운 내 신세 가련해라(念我之獨)/누구와 함께 살아갈꼬?(誰其與歸)”가 된다. <황조가>의 주제의식은 ‘念我之獨’·‘誰其與歸’에 잘 녹아 있는데, 이 두 구절에는 치회에 대한 유리왕의 애절한 마음과 이별에 대한 상실감, 즉 ‘고독’과 ‘상실감’, ‘자기 연민’과 ‘의지할 데 없이 외롭고 冥冥한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황조가>는 보편적 민요 형식에다 자연물(피꼬리)과 자아의 대립적 정황을 담았다. ‘정다운 자연물—외로운 자아’의 대조 속에 치회와의 이별을 계기로 절감한 자기주변과 정치상황에 대한 성찰, ‘고독·상실감·자기 연민’ 등의 자기 내면을 진솔하게 형상화하였다.

## 참고문헌

『舊唐書』; 『三國史記』; 『三國志』; 『詩經』; 『禮記注疏』; 『遼史』; 『爾雅』; 『戰國策』; 『春秋左傳注疏』.  
『後漢書』; 『大東韻府羣玉』; 『石洲集』; 『文叢』; 『陶淵明集』; 『全唐詩』; 『古今事文類聚』; 『古文雅正』.  
『御定佩文齋詠物詩選』; 『樂城集』; 『伊濱集』; 『吳都文粹續集』; 『益齋亂藁』; 『西河集』; 『橫浦集』.  
『羣書考索』; 『春秋春王正月考』; 『日本書紀』; 『詩疑辨證』.

韓養民, 『秦漢文化史』. 陝西人民教育出版社, 1986.

汪玢玲·張志立 主編, 『中國民俗文化大觀』. 吉林人民出版社, 1999.

張碧波·董國堯, 『中國古代北方民族文化史』. 民族文化卷, 黑龍江人民出版社, 1993.

강선, 「고구려 건국시기 대외관계」. 『고구려의 국가 형성』. 서울: 고구려연구재단, 2005.

- 고운기, 『가려 뽑은 고대시가』. 서울: 현암사, 2007.
- 곽정식, 「유리왕 전승에 대한 한 고찰」. 『부산한글』 3, 한글학회 부산지회, 1984, 1~12쪽.
- 琴京淑, 「高句麗 國內城 遷都의 歷史的 意味」. 『高句麗研究』 15집, 고구려연구회, 2003, 5~25쪽.
- 김기흥, 『고구려 건국사』. 서울: 창작과비평사, 2002.
- 김무식, 『옛글 속의 우리 문화 엮보기』. 부산: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4.
- 김미경, 「高句麗 琉璃王代 政治勢力의 再編과 對外政策」. 『北方史論叢』 4, 고구려연구재단, 2005, 217~257쪽.
- 金承璨, 『韓國上古文學研究』. 서울: 第一文化社, 1978.
- 金承璨·權斗煥, 『古典詩歌論』.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87.
- 김영수, 「黃鳥歌 新解釋」. 『古代歌謠研究』. 용인: 단국대학교출판부, 2007.
- 김영하, 「고구려의 巡狩制」. 『역사학보』 106, 역사학회, 1985, 1~54쪽.
- 김영하, 「新羅時代 巡狩의 性格」. 『民族文化研究』 1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79, 199~247쪽.
- 金龍善, 「高句麗 琉璃王 考」. 『역사학보』 87, 역사학회, 1980, 45~62쪽.
- 김원중, 『혼인의 문화사』. 서울: 휴머니스트, 2007.
- 김학성, 「<黃鳥歌>의 작품 성격」. 『한국고전시가작품론(1)』. 서울: 집문당, 1992.
- 김학성, 『韓國古典詩歌의 研究』. 이리: 圓光大學校 出版局, 1980.
- 김흥규, 『韓國文學의 理解』. 서울: 민음사, 1986.
- 마르셀 그라네(지)/신하령·김태완(역), 『중국의 고대 축제와 가요』. 서울: 살림, 2005.
- 박경철, 「고구려의 국가형성」. 『고구려의 정치와 사회』.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7.
- 성기욱·손종흠, 『고전시가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6.
- 申澄植,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서울: 一潮閣, 1984.
- 余昊奎, 「高句麗의 國家形成과 漢의 對外政策」. 『軍史』 5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1~37쪽.
- 우용태, 『釜山の 새』. 부산: 경성대학교 조류관, 2002.
- 원병오, 『한국동식물도감(25): 동물편(조류 생태)』. 서울: 문교부, 1981.
- 李庚秀, 「黃鳥歌의 解釋」. 『韓國文學史의 爭點』. 서울: 集文堂, 1986.
- 李玉, 『高句麗 民族形成과 社會』. 서울: 敎保文庫, 1984.
- 이종욱, 『한국의 초기국가』. 서울: 아르케, 1999.
- 이종욱, 『고구려의 역사』. 서울: 김영사, 2005.
- 任東權, 『韓國民謠史』. 서울: 集文堂, 1964.
- 임주탁·주문경, 「<黃鳥歌>의 새로운 해석: 관련 서사의 서술의도와 관련하여」. 『冠嶽語文研究』 29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4, 439~466쪽.

田寬秀, 「제의적 측면에서 본 黃鳥歌의 성격」. 『韓國古典詩歌史』. 서울: 集文堂, 1997.

鄭武龍, 「黃鳥歌 研究(1)」. 『靑泉 康龍權博士 頌壽紀念論叢』, 同 刊行委員會, 1986, 309~329쪽.

鄭武龍, 「黃鳥歌 研究(2)」. 『國語國文學 論文集』 7집, 東亞大學校 文科大學 國語國文學科, 1986, 53~68쪽.

정민, 『한시 속의 새, 그림 속의 새(2)』. 서울: 효형출판, 2003.

정민, 「새를 통해 본 고전시가의 몇 국면」. 『韓國詩歌研究』 15, 韓國詩歌學會, 2004, 13~39쪽.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 서울: 신구문화사, 199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1)』. 서울: 지식산업사, 1994, 3판.

조용호, 「황조가의 求愛民謠의 성격」. 『古典文學研究』 32, 한국고전문학회, 2007, 5~34쪽.

최두식·하상규, 「詩經과 韓國古詩歌」. 『古詩歌研究』. 부산: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2.

許南春, 「黃鳥歌의 祭儀的 性格(1)」. 『成大文學』 24, 成均館大 國語國文學科, 1985, 153~164쪽.

허남춘, 「고대시가의 주술성과 제의성」. 『新編 古典詩歌論』. 서울: 새문사, 2002.

### 국 문 요약

그동안 유리왕의妃 松讓女가 대무신왕의 어머니라고 기록한 『삼국사기』를 불신했지만, 이는 거란·여진 등의 보편적 혼속 ‘姉亡妹續’을 말한다. 유리왕의 ‘田’은 ‘사냥(田獵, 蒐田)’으로, 왕의 국가적 결속을 위한 巡狩였으니 유리왕은 안정되지 못한 국내·외 정세에서 국내의 분열을 수습하고 정략혼인으로 화합하며 왕조의 기틀을 닦아야 하는 입장이었다.

<황조가> 해독에서 간과해온 부분은 ‘念’·‘誰其’·‘歸’등인데, ‘念’은 竹實이 열지 않아 그냥 돌아가는 봉황에게 “네가 아침을 굶을까 걱정스럽구나(念子忍朝飢)”한 杜甫의 시나 한해가 저물어도 돌아가지 못해 “나의 고독함도 염려스러웠다(故心憂 而念我之獨也)”에 나오듯 “哀憐·可憐하다, 염려하다”로 풀이해야 하고, ‘誰其’는 “도대체(과연) 누구와”라는 뜻 이외에 “자신이 죽었으니 누가 장차 그 뒤를 이을 것인가(誰其嗣之)”에서처럼 ‘장차(앞으로)’로도 읽힌다. ‘歸’는 “자신이 우리를 버리고 죽었다단 말인가. 백성들은 앞으로 어찌 살아야한단 말인가?(子產去我死乎 民將安歸)”에서처럼 “지내다, 살아가다”로 풀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황조가> 문맥을 풀면, “포르르 나는 꾀꼬리는(翩翩黃鳥)/암수

서로 애뜻한데(雌雄相依)/내 외로움 가련해라(念我之獨)/누구와 함께 살아갈  
꼬?(誰其與歸)”가 된다. ‘念我之獨’·‘誰其與歸’에 치회에 대한 유리왕의 고  
독하고 애절한 마음과 상실감, 막막한 심정이 녹아들어 있다.

<황조가>는 유리왕이 ‘정다운 자연물—외로운 자아’라는 보편적 형식에  
다, 치회와의 이별을 계기로 절감한 자기주변과 정치상황에 대한 성찰, ‘고독·  
상실감·자기 연민’ 등의 자기 내면을 진솔하게 형상화하였다. 나아가 ‘정락  
과 견제’의 정치현실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떠다니고 싶은 순수하고 솔직한  
유리왕의 무의식을 드러냈다 할 수 있다.

- 투고일 : 2009. 7. 13.      ● 수정일 : 2009. 8. 28.      ● 게재확정일 : 2009. 9. 9.
- 주제어(keyword) : 姉亡妹續(replace dead elder sister with her younger sister), 사냥(田獵, 蒐田; hunting), 정략적 혼인(a marriage for political reasons), 국가적 결속(national unity), 哀憐/可憐(念)·장차(其)(pitiful in the future), 살아감(歸; return), 고독과 상실감(loneliness and heartbreak), 자기 연민(self-pity), 寔寔(desolation), 자유로움의 갈구(a longing for freedom).